테마명	관광진흥	지방정부명	부여군
시책 명칭	부여 백시달 EQ 버스 (부여, 백제의 시간을 달린다) EQ=education Quiz		
개 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며 투어하는 특색있는 관광아이템으로 전국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으로 부여를 찾는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예산액	60,000,000 원	(U$ 50,782)	

1. 과제 (현재 상황)

버스투어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이 된 백제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잘 알려진 문화유적지 외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부여군을 가보고 싶은 곳 새로운 여행지로 각인시키고자 함

2. 목표 (장래상)

◇ 테마가 있는 투어

부여가 갖고 있는 역사라는 강력한 테마를 이용한 콘텐츠를 통해 단순한 시티 투어가 아닌 부여군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개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책에서만 읽었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여행.공연 프로그램

◇ 과거 + 현재 = 미래

완성된 백제의 문화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백제 패망의 아픔도 고스란히 전해 주는 부여.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의 현재에서 찬란했던 과거를 직접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세계문화유산 부여

왕릉유적 그리고 부소산과 궁남지 등 발전했던 백제 문화가 밀집되어있고 더불어 백제문화단지, 국립박물관, 낙화암 등 현재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도 많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런 과거와 현재의 문화재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투어버스 운영

3. 시책 내용

- ㅇ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0월
- ㅇ 총사업비 : 60,000천원(국고보조금30,000천원 / 지방비30,000천원)
- ㅇ 사업내용 : 어린이 콘텐츠형 시티투어 버스 운영
- ㅇ 보조사업자명 : 부여군
- ㅇ 운행코스

구 분	위 치	특 징
❶ 부소산성 (낙화암, 고란사)	부여읍	- 백제 수도 사비를 수호하기 위해 축조된 산성으로 낙화암, 고란사 등이 위치해 있으며 부소산성 옆으로 백마강이 흐르고 있어 황포돛배를 즐길 수 있음
❷ 정림사지 (오층석탑, 박물관)	부여읍	-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시기에 세워진 왕궁과 관련이 깊은 사찰로 짐작되며 국보 제9호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자리하고 있음
❸ 능산리 고분군	부여읍	- 백제왕들의 무덤군으로 총7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1993년 능산리절터에서 국보 제287호 금동대향로가 출토됨
❹백제문화단지	규암면	- 백제왕궁, 사찰을 비롯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테마파크임

부소산성 (낙화암, 고란사)	정림사지 (오층석탑, 박물관)	능산리 고분군	백제문화단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성장
- 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유입된 관광객 들로 인한 추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에듀케이션 버스의 기획을 통해 단순한 투어버스에서 1석 2 조의 교육형 투어버스로 성장
- 부여의 관광자원을 역사/문화콘텐츠로 확장시켜 새로운 부여의 이미지 제고

4. 참고 자료

테마명	관광진흥	지방정부명	전라남도
시책 명칭	시군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 지원		
개 요	○ 사 업 명 : 시군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 예 산 액 : 100 백만원(도비)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시군비 50% 매칭 사업 ○ 지원범위 : 1 개 시군당 10 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권역별 협의체 구성 후 시군비 50% 매칭 가능 시군 ○ 사업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공동 상품개발 및 공동 마케팅(관광박람회 참가, 홍보설명회, 팸투어)		
예산액	(100 백만원)	(U$ 환산)	

1. 과제 (현재 상황)

○ 전라남도 행정구역은 22 개 시군(7 개시, 15 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에서 자체사업(시군예산)으로 관광 홍보활동 및 홍보 마케팅 실시.

2. 목표 (장래상)

○ 지역 호감도에 경쟁력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마케팅 거점화

○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별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3. 시책 내용

(개요)

○ 사 업 명 : 시군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 예 산 액 : 100 백만원(도비)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시군비 50% 매칭 사업

○ 지원범위 : 1 개 시군당 10 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권역별 협의체 구성 후 시군비 50% 매칭 가능 시군

○ 사업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공동 상품개발 및 공동 마케팅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설명회, 팸투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 신규 관광개발사업으로 이슈가 되거나 국제행사가 있는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협의체 구성하여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 활발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 시군 자율적 권역별 협의체 구성이 어려움(예산 등 시군 의견 차이)

테마명	관광진흥	지방정부명	경상북도
시책 명칭	“경북에 오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개 요	○ 경상북도는 800리 백두대간, 700리 낙동강, 맑고 깨끗한 1,300리 동해안까지 ‘강, 산, 해’천혜의 자원을 모두 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 한국문화의 원류인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신라천년의 불교문화, 신비한 고대왕국의 가야문화가 번창한 3대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 경북에서는 9.27-10. 6까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풍기 인삼축제, 청송사과축제 등 80여개의 축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년내내 23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예산액	(현지 통화)	(U$ 환산)	

1. 과제 (현재 상황)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KTX 기준으로, 서울에서 2 시간 부산 및 대구에서는 30 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지방공항의 성장세와 지방관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2. 목표 (장래상)

○아름답고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잘 보존하고 숨은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실현

3. 시책 내용

(개요)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

*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이라는 주제로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5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진다. 1998년 세계 최초의 문화박람회로 시작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 2017년 베트남 호치민까지 총 9번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냈다.

* 지금까지 약 8만 4천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석했고, 누적관람객이 2천만명을 넘는 등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이끄는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2020 대구경북방문의 해】 개최

*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문화관광 협력을 통한 지방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구경북이 만들어가기 위해 내년을 대구경북방문의 해로 정하였다.
*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구경북이 14개의 공동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 2018 년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약 1,535 만명으로 일본이 3 위로 295 만명 919.2%0 를 차지하였다.

○ 1 위를 차지한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으로 경상북도 안동과 경주에서 전통문화 체험과 관광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경북테마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 개별여행을 선호하는 일본관광객이나 모녀 등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행선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특히, 인스타바(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일본 신조어)에 추천코스를 제안하여 경북의 색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4. 참고 자료